

특집논문

한국전쟁기의 의료구호기관: 거제 세브란스병원의 개원과 운영

김영수*

- I. 들어가는 말
- II. 거제 세브란스병원의 개원 과정
- III. 거제 세브란스병원의 구성과 의료활동
 - 1. 거제 세브란스병원의 구성
 - 2. 피난민 진료 및 공중보건사업의 거점
- IV. 지역병원으로의 전환과 병원의 이전 운영
 - 1. 구호병원에서 지역병원으로의 전환과 재정 문제
 - 2. 한국전쟁 이후 병원의 이전과 운영
- V. 맺음말

I. 들어가는 말

한국전쟁 당시 세브란스병원은 전시구호병원으로서 부상병 치료를 담당하였으나, 전쟁의 포화 속에 서울에서 업무를 지속할 수 없었다. 이에 1951년 거제도에 세브란스병원을 개원하여 전시구호병원의 역할을 지속해 나아갔다. 거제 세브란스병원은 서울역 앞 세브란스병원의 재건사업이 시작된 1952년 3월까지 약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세브란스를 대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사학과 및 의학사연구소 연구조교수, 동아시아의학사 전공

표하는 의료기관이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거제 세브란스의 운영기간은 이와 같으나, 그 이후에도 거제 세브란스병원이 폐원되지 않고 운영되었다는 사실은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세브란스병원이 어떠한 연유로 거제도에 자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거제 세브란스병원에 관해서는 1.4 후퇴 이후 세브란스병원의 구성원이 거제도로 내려가서 전시 의료구호와 간호교육을 시행했다는 사실만이 전해져 내려올 뿐 구체적인 활동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단일한 사건보다는 행위의 지속성에 주목하는 기관사(史) 서술의 특징으로 인하여 거제 세브란스병원보다는 서울역 앞 세브란스병원의 재건사업과 이후의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맞춰 서술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전쟁기 세브란스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소실된 탓에 구체적인 개원 과정과 운영을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거제 세브란스병원은 한국전쟁기 수많은 피난민의 의료를 담당했던 전시구호병원으로, 세브란스의 역사뿐만 아니라 근현대 한국사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 공간이다. 이에 세브란스병원이 거제도에 거점을 마련하게 된 이유와 구체적인 의료활동, 그리고 전후의 병원 운영 등을 확인하여 거제 세브란스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전쟁기의 의료, 그리고 지역 의료와 관련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브란스병원이 왜 거제도에 거점을 마련하고 개원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의료행위를 지속했는지 등 병원의 개원과 운영에 관해서는 『의학백년』(1986)과 연세 의대 의사학과 및 의학사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연세의사학』 7권 2호에 실린 구술자료 「세브란스와 한국전쟁」¹⁾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실린 내용들은 원로 교수의 구술을 채록하여 수록한 것으로, 당시 발간된 정부 및 지역 발간 자료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그러한 가운데 최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이 「세브란스 거제분원 약사」를 소장하고 있고, 국사편찬위원회가 수집한 해외문서 가운데 거제 세브란스병원의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 자료는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병원의 개원 과정과 규모, 현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롭게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전쟁기의 구호의료기관으로 활약한 거

1) 이 자료는 원로교수 인터뷰 자료로, 1948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졸업생인 이삼열 명예교수와 1944년 세브란스병원 엑스레이기사로 입사한 황중섭 선생이 인터뷰에 참여하여 한국전쟁 당시 세브란스병원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세브란스와 한국전쟁」, 『연세의사학』 7(2), 2003, 103-132쪽.

제 세브란스 병원의 개원과 운영을 살펴보면, 세브란스병원의 전시구호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세브란스병원이 거제 지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 작업은 세브란스병원의 역사를 확인하는 작업이자, 한국전쟁기 피난민과 거제주민의 의료를 담당했던 세브란스병원이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짚어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II. 거제 세브란스병원의 개원 과정

먼저 세브란스병원이 어떻게 거제도에 개원하게 되었는지를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세브란스병원은 곧바로 비상 체제로 운영되었고, 1.4 후퇴까지 의료활동을 지속했다. 1.4 후퇴 당시 세브란스 교직원들은 세브란스 출신 국회의원 이용설과 미 감리교 의료선교사이자 세브란스 교수 만제(Fred P. Manget)의 도움으로 전차상륙함인 LST(Landing Ship, Tank)를 빌리고, 기차 한 칸에 의료 장비를 실어 부산까지 내려갔다.²⁾ 여기서 또다시 거제로 이동하여 거제 세브란스병원을 개원하였다. 병원은 거제도 장승포시에 세워졌는데, 이곳에 병원을 개원하게 된 데에는 한국전쟁 이전부터 거제도에 세브란스의 졸업생이 내려가서 활동하던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과 거제 세브란스병원의 설립을 추진했던 김명선 당시 세브란스의과대학 부학장과 주변 인적 관계가 영향을 미쳤다.

교사(校史)는 거제도에 세브란스병원을 개원하게 된 이유를 두고 김명선과 진도선의 관계에 주목했다. 김명선은 송실중학교, 진도선은 송실전문학교 출신으로, 평양에 설립되었던 중·고등교육기관인 송실학교를 매개로 친분이 있었고, 김명선이 평양기독병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진도선은 그를 선배로 깎듯이 모시면서 교분을 쌓았다고 전해진다.³⁾ 해방 이후 진도선은 장승포교회 장로로 활동하면서 거제중학교⁴⁾의 초대 교장을 역임하는 등 거제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성장했고, 거제도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개선하고자 김

2) 「세브란스와 한국전쟁」, 113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백년 편찬위원회, 『의학백년』(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6), 154쪽.

3) 박두혁, 『영원한 세브란스인 김명선』(서울: 김명선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회, 1998), 241쪽.

4) 학교가 세워질 때에는 거제중학교가 아닌 거제초급중학교라고 불렀다가 1950년에 거제중학교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거제문화원향토사연구소, 『거제근현대문헌총서 V: 미군정기와 1960년 이전 거제도 중요문서』(서울: 선인, 2016), 447쪽; 「광고」, 『자유민보』, 1949.7.10.; 「축 신년」, 『산업신문』, 1950.2.15.

명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해방 후 인구 10만⁵⁾이 넘는 지역인 거제도에서 대학 나온 의사가 한 명도 없는 현실에 비용은 자비로 부담하고 김명선에게 진료소를 설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련 논의는 1948년 겨울부터 이루어졌고, 진료소는 1949년에 개소하였다. 김명선은 진료소 개소 후에 노경병, 이한주, 김인성, 이삼열 등 레지던트 4명에게 진료소로 내려갈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1948년 세브란스의과대학 졸업 동기로 함께 YMCA 활동을 하고 있었다.⁶⁾ 세브란스의과대학 학생들은 방학을 활용하여 무의촌 의료봉사를 다녔기 때문에 거제도에서의 진료 활동은 낯설지 않았을 것이다.⁷⁾ 다만, 진료소는 그들이 전담하여 운영해야 했기에, 경험치가 쌓이지 않았던 개소 초기에는 2명이 짝을 지어 3개월씩 교대로 내려가 진료를 담당하며 수련과 동시에 지역의료에 참여했다.⁸⁾ 그중 이한주는 교대근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현지에서 남아 개업했고,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당시에도 거제도에 거주하고 있었다.⁹⁾

위의 내용을 통해 세브란스의과대학 출신의 의사들이 한국전쟁 이전부터 김명선의 주선으로 거제도의 지역의료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연으로 한국전쟁 당시 부산으로 내려온 세브란스병원의 책임자인 조광현이 진도선을 만나 병원을 옮기는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 거제도에서 의료활동을 시작했다고 전해지는 것이다.¹⁰⁾ 처음에는 서울에서 가져온 미제 50병상 유닛을 비롯하여 의료기구를 가지고 거제중학교¹¹⁾에서 의료활동을 시작했으나, 곧 국민방위군이 사용하던 장승포국민학교로 옮겨 병원을 운영했고, 민사원조처(CAC, Civil Assistance Corps)에서 일하던 세브란스의과대학 1947년 졸업

5) 거제도 인구수 통계는 UNCACK 거제도팀 인구조사에 따른 것이다. 거제도팀은 피난민 분산수용정책에 따라서 1951년 1월부터 매달 인구조사를 실시했다. 미군은 이 팀이 조직되기 이전의 거제도에 거주한 주민 수를 통상 10만 명으로 집계하였다. 거제문화원향토사연구소, 『거제근현대문헌총서 V: 미군정기와 1960년 이전 거제도 중요문서』, 155-156쪽.

6) 박두혁, 『영원한 세브란스인 김명선』, 241쪽.

7)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역음, 『세브란스 학생운동사』(역사공간, 2020), 83-84쪽.

8) 「세브란스와 한국전쟁」, 114-115쪽.

9) 2021년 3월 26일 한국전쟁 당시 거제도에 마련된 세브란스고등간호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간호사로 활동한 하영수 이화여대 명예교수(1953년졸), 김선 선생(1953년졸)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거제 세브란스병원이 개원하기 이전 세브란스 출신의 이모 선생님이 현지에서 개업을 하고 있어서 병원에 와서 도와주기도 했다고 구술하였다. 이한주가 거제도에서 개업을 한 사실은 『연세의사학』의 「세브란스와 한국전쟁」을 다룬 구술 내용 중 이삼열 명예교수의 이야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영수, 김선 인터뷰>, 2021년 3월 26일; 「세브란스와 한국전쟁」, 114-115쪽.

1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백년 편찬위원회, 『의학백년』, 155쪽.

11) 『의학백년』에는 YMCA회관에서 병원을 시작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고, 동은의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세브란스 거제분원 약사』에는 진도선이 경영하던 거제중고등학교로 기술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백년 편찬위원회, 『의학백년』, 155쪽 및 「세브란스 거제분원 약사」(미출간자료) 참조.

업생인 이병태가 적극적으로 주선해서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데에 이르렀다고 한다.¹²⁾

이처럼 기존 자료는 세브란스병원이 거제도에 전시구호병원을 개원한 것과 병원이 거제 중학교에서 장승포국민학교로 이전하게 된 연유를 세브란스 출신들이 이미 거제도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개인적인 인맥이 작용한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개원 초기 병원의 이전도 미8군 의무책임자가 우연히 병원 진료 광경을 보고 좀 더 넓은 공간이 필요 하겠다고 장승포국민학교 건물을 내주었다거나, 국민방위군 대장과 치과를 담당한 이동섭 이 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그들이 만난 자리에서 국민학교 건물을 인수받아 교실에 칸막 이를 쳐서 병원으로 활용하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¹³⁾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쟁으로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 피난민이 발생하고, 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몇 안 되는 종합병원이 거제도에 들어섰다는 사실은 사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선 사회적인 요청이 작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전쟁기의 의료상황과 민사원조사령부(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rps Korea, UNCACK, 이하 UNCACK으로 표기) 산하의 조직 및 분장 업무 변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951년 1월초에 정부는 피난민을 돌볼 수 있는 종합병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피난지역 의 요지에 5개의 구호병원을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하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적십자병원, 철도병원 등이 구호병원으로 지정되었고, 각 지역에 배치되었다. 이에 세브란스병원은 거제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북제주와 남제주에, 적십자병원과 철도병원은 부산에 세워지게 되었다.¹⁴⁾ 신문기사만으로 각 병원이 특정 지역에 배치된 구체적인 정황이나 이유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역 할당 과 구호병원 관리 및 운영에 UNCACK이 관여했음은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자료는 세브란스가 거제도에 위치하게 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UNCACK은 1951년 1월 24일에 거제도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별도로 마련했다. 원래 거제도 관련 업무는 경상남도팀 내 거제서브(-sub)팀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를 별도의 독립된 거제도팀으로 변경하여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이러한 변경은 흥남대철수로 발생한 피난민과 거제도 포로수용소 설치에 따른 것이었다.¹⁵⁾ 조직 변경에 따라 거제도팀이 만들어지면서 거제도팀은 거제도의 민·형사행정 전반

1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백년 편찬위원회, 『의학백년』, 160-161쪽.

13) 「세브란스와 한국전쟁」, 116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백년 편찬위원회, 『의학백년』, 161쪽.

14) 「피난민구호에 만전-각 지방에 종합병원설치」, 『동아일보』, 1951.1. 13.

15) 『거제근현대문헌총서 V: 미군정기와 1960년 이전 거제도 중요문서』, 154쪽.

에 관여했는데, 담당하던 여러 업무 중에는 공중보건(Public Health) 사업도 포함되어 있었다. 공중보건사업의 주된 업무는 감염병 환자 수를 조사·보고하는 것과 병원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1951년 1월 25일의 UNCACK 경상남도팀의 보고서에는 병원(Hospitals) 건설은 계획단계에 있다고 전하면서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을 위한 부지는 마련되었고 그들의 도착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기술하였다.¹⁶⁾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지가 바로 장승포국민학교이다. 실제로 보고서가 작성된 1951년 1월 25일에 세브란스의과대학 1945년 졸업생 윤상하와 1948년 졸업생 최억 등이 세브란스 구호병원의 선발대로, 부산에 피난을 와 있던 의사들이 이 병원에 합류했다고 『의학백년』에서 기술하고 있다.¹⁷⁾ 따라서 자료들을 종합해볼 때, 거제 세브란스병원의 개원에는 김명선과 진도선의 사적인 친분관계¹⁸⁾를 넘어서서 정부가 피난지에 구호병원을 배치하려고 했던 계획과 UNCACK의 공중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병원 건설사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UNCACK이 동시기 제주도에도 병원을 건설하고자 계획하고 있었던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¹⁹⁾

III. 거제 세브란스병원의 구성과 의료활동

1. 거제 세브란스병원의 구성

1951년 1월 말 거제 세브란스병원은 장승포국민학교에 개원했다. 개원 초기에 의료를 담당할 인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6) 병원 부지 확보에 대한 보고와 함께 40개 Bed Hospital Unit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도착하였고, 이를 2명의 의사와 함께 하청과 거제에 배분할 것도 기록하였다. "Weekly Report," 25 January 1951, RG 338, UN Civil Assistance Command, Korea (UNCACK), 1951, Box 17, Hist Prog Files - Weekly Act RPTS 1951 (1 of 2).

17)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백년 편찬위원회, 『의학백년』, 160-161쪽.

18) 다만, 거제에 세울 병원을 담당할 인력으로 세브란스병원의 의료진을 상정한 것에는 1948년부터 세브란스 출신의 의료진이 거제도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

19) "Weekly Activity Report," 23 January 1951, RG 338, UN Civil Assistance Command, Korea (UNCACK), 1951, Box 17, Hist Prog Files - Weekly Act RPTS 1951 (1 of 2).

〈거제 세브란스병원 의료진 구성〉²⁰⁾

거제 세브란스병원장: 조광현(내과학)

외과: 황규철, 이근영, 김광희

이비인후과: 윤상하

치과: 이동섭

산부인과: 최금덕, 노경병(개업)

안과: 최역²¹⁾, 최창수

마취과: 이성영

홍사석(약리학)

X-ray 기사: 황중섭

간호학교 구성원: 샌들(Ada Sandell) 교장, 김재금, 송마리아, 이금전, 이영복

위의 명단은 세브란스병원 출신 원로 인터뷰와 「세브란스 거제분원 약사」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 중에는 개원 초창기부터 병원 업무를 담당한 사람도 있고, 병원 업무가 시작되자 부산에 피난왔다가 합류한 인력도 포함되어 있다. 미군 문서 속에서도 병원장을 제외하고 조직도를 언급하거나, 근무자의 성명 전체를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초기 병원 업무에 참여한 구성원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UNCACK의 보고를 참조하면, 세브란스병원에는 공식적으로는 아래의 표에서 제시한 의사 6명, 보조 6명, 간호사 6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²⁾

표 1. 1951년 4월 28일 UNCACK 거제도팀 보고내용 중 한국인 의료기관 설치현황²³⁾

지역	설치종류	의사	보조	간호사	병상
장목	진료소	1	1	1	

20) 『연세의사학』에 실린 「세브란스와 한국전쟁」 인터뷰와 『의학백년』에서 언급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21) 원로 인터뷰에는 최역이 거제도에서 활동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의학백년』에서 세브란스 구호병원 선발대로 거제도에 갔다는 기술에 근거하여 당시 세브란스의과대학 안과 레지던트였던 최역을 추가하였다. 「한국 안과학의 선구자, 최역」, 『연세의사학』 15(1), 2012.

22) 거제문화원향토사연구소, 『거제근현대문헌총서 V: 미군정기와 1960년 이전 거제도 중요문서』, 202쪽.

23) 인용하는 표에 제시되어 있는 '설치종류' 중 '약국'으로 기술한 항목은 Dispensary의 오역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원래 표에 '약국'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진료소'로 변경하여 표기하였다. 거제문화원향토사연구소, 『거제근현대문헌총서 V: 미군정기와 1960년 이전 거제도 중요문서』, 202쪽.

지역	설치종류	의사	보조	간호사	병상
외포	진료소	1	1	1	10
하청	개인병원	2	2	2	2
죽토	진료소	1	1		
연초	개인병원	1	1		2
장승포	개인병원	1	1		
장승포	세브란스	6	6	6	100
옥포	진료소	1	1	1	
성포	진료소	1	1	1	
성포	개인병원	1	1		2
지세포	진료소	1	1	1	
구조라	진료소	1	1	1	
지세포	개인병원	1	1		3
성내	진료소	2	2	2	10
성내	개인병원	1	1		
사등	진료소	1	1	1	
산양	진료소	1	1	1	
산양	개인병원	1	1		
저구	진료소	1	1	1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브란스병원은 거제도 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된 의료기관이었다. 표에서는 병원의 의사 수와 같은 수의 간호사 및 보조가 상주하고 있었다고 하나, 실제로 가용인력은 더 많았다. 간호업무는 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던 세브란스의과대학 부속 고등간호학교의 교원과 학생이 담당했는데, 1951-2년 당시 간호원장 1명, 졸업간호원이 4-5명, 학생도우미 9명 정도의 규모였다. 학생도우미는 간호학교의 학생들로, 그들은 간호교육을 받으면서 동시에 임상 현장에도 투입되었다.²⁴⁾ 거제 세브란스병원에

24) 1949년 고등간호학교 입학생 총 40명 중 10명이 이곳에 내려와 교육을 받고 임상실습에 참여했다고 하고, 상급 학년의 학생도 수 명 근무했다고 전해진다. 그들은 서울에서 바로 거제도로 내려온 것은 아니었고, 각각 다른 루트로 거제 세브란스병원에 모인 고등간호학교 학생들이었다. 부산 등지에 피난을 와 있던 간호학생이 학장 명의로 세브란스의대생에게 보낸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갔다가 거제도로 합류한 경우도 있고, 부산의 철도병원 등에서 일하다가 소식을 듣고 거제도로 이동한 경우도 있었다. 합류한 계기와 시점은 제각각이었지만, 이들은 장승포국민학교 건물 한 칸에 마련된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짝 짜여진 스케줄의 간호교육을 받으면서도 병원의 간호업무

서는 환자 간호를 처음부터 끝까지 간호사가 담당하는 완전간호를 실시하도록 교육했기 때문에 타 병원보다 간호업무가 가중되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했다.²⁵⁾

그러한 가운데 1951년 2월 제2대 문교부장관 백낙준이 임시수도인 부산에서 「전시하 교육특별조치요강」을 발표하면서, 거제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전시간호학교에는 세브란스의과대학 부속고등간호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적십자 간호학교, 철도 간호학교 등 타학교에서 수학하던 학생들도 교육을 받았다. 1951년 4월의 신문기사에 따르면 세브란스 고등간호학교에서는 120명을 수용·교육했다고 한다.²⁶⁾ 따라서 실제 병원이 가용할 수 있는 간호인력은 UNCACK이 집계한 수를 크게 뛰어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병원 업무와 함께 간호학교 운영도 거제 세브란스병원의 운영과 크게 맞물려 있다 보니 병원 건물은 병원과 간호학교가 같이 사용하는 형태였다. 세브란스병원으로 사용되던 장승포국민학교 건물은 앞뒤로 나란히 세워진 구조였는데, 앞뒤 건물 전체를 병원 건물로 사용했다. 앞 건물에는 여자병실, 소아병실, 원무과, 엑스레이실, 수술실, 외래, 간호학교 교실, 간호학교 사무실 등이 배치되어 있었고, 뒷 건물에는 남자 병실과 간호학교 졸업생 숙소 및 간호학교 학생 기숙사가 마련되어 있었다.²⁷⁾

2. 피난민 진료 및 공중보건사업의 거점

세브란스병원이 위치한 장승포는 UNCACK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미 극동군 지휘하의 유엔군은 전쟁 수행을 위해 교전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피난민과 후방의 안정적 관리, 미군과 유엔군의 보건위생 확보 등을 위해 UNCACK을 창설했고, 공중보건과와 공중위생과를 두고 후방지역에서 한국인의 보건과 위생을 관리, 통제하고자 했다. UNCACK의 공중보건 책임자들은 1951년 3월 중순 각 지방팀에 파견되었고, 1951년 4월에는 모든 지방에 UNCACK의 통제를 받는 공중보건전문인력이 배치되었다.²⁸⁾ 장승포는 UNCACK의 경상남도 지역팀(Kyongsang Nam Do Provincial Team)의 관할에 속해 있는 지역²⁹⁾

의 대부분을 담당했다. <하영수, 김선 인터뷰>, 2021년 3월 26일.

25) <하영수, 김선 인터뷰>, 2021년 3월 26일.

26) 기사에서는 대구동산, 전주, 광주의 고등간호학교와 더불어 거제도에서 고등간호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총 336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세브란스 고등간호학교에 수용하여 교육한 학생의 총수가 120명에 달하였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구술을 통하여 확인된 숫자와 큰 격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世富蘭西高等看護學校 巨濟島서 開校」, 『동아일보』, 1951. 4. 19.

27) <하영수, 김선 인터뷰>, 2021년 3월 26일.

28) 이동원, 「6·25전쟁과 한국 보건의학계 및 보건학의 형성」, 『동국사학』 69, 2020, 350-351쪽.

이었고, 민사원조처의 본부가 위치한 곳이기도 했다.³⁰⁾ 아울러 거제도 내에 가장 많은 피난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거제 세브란스병원의 운영은 필연적으로 UNCACK의 공중보건사업과 맞물려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관계는 UNCACK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51년 3월 11일 거제도에 의료팀이 구성되었는데, 의료팀에는 세브란스병원 소속 의사 6명이 포함되었다. 또한 UNCACK은 거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10개의 공중보건팀을 조직했는데, 장승포읍 일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세브란스병원을 지목하였다.³¹⁾ 특히 UNCACK의 경상남도 지역팀이 작성한 자료에서 이 관계는 더욱 명확하다. 경상남도 지역팀은 여러 차례에 걸쳐 거제도 현지 조사를 시행했는데, 이는 피난민 중 두창, 발진티푸스 등의 감염병 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환자를 격리하고, 예방접종 등의 방역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이었다.³²⁾ 그들은 피난민이 거제도에 도착했을 때 거제도로 파견되어 발진티푸스, 두창 예방접종 및 구제작업(Dusting), 살충제 살포 등을 직접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세브란스병원은 감염병 환자를 수용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고, 병원 소속 의사는 장승포 주변 지역인 옥포에서 온 피난민들의 건강 상태와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했다.³³⁾

또한 뇌염 등 유행병이 발생했을 경우, 현지 조사의 대부분은 경상남도 지역팀에서 파견된スタッフが 담당하고, 세브란스병원은 이에 관한 임상 검사나 추가 관찰, 치료, 해부 등을 담당하였다.³⁴⁾ 또한 거제도팀 지휘관(Koje-Do Team Commander)의 요청에 따라 모든 뇌염 사례보고는 세브란스병원으로 수합하였고, 경찰이 수집한 의심 사례도 세브란스병원에 보고하여 모두 수합하도록 하였다. 조광현 병원장이 담당자로서 각 사례를 확인하

29) 거제도팀이 별도로 조직되기는 하였으나, 거제도팀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경상남도팀에서 인력을 파견하여 거제의 공중보건사업에 관여했다.

30) 신규환, 「전환기의 세브란스병원과 선교활동(1934-1957)」, 『연세의사학』 17(1), 2015, 145쪽.

31) 거제문화원향토사연구소, 『거제근현대문헌총서 V: 미군정기와 1960년 이전 거제도 중요문서』, 162-163쪽 및 210쪽.

32) "Field trip to Kojedo," 26 January 1952, RG 469, Records of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1942-1963, Unclassified Subject Files, ca.1955-11/03/1961, Entry P 321, 37. Goje Gun.

33) 사료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의 조광현 병원장이 이 역할을 담당했다. "Field trip to Kojedo," 26 January 1952, RG 469, Records of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1942-1963, Unclassified Subject Files, ca.1955-11/03/1961, Entry P 321, 37. Goje Gun.

34) 보고서에는 세브란스병원에는 화학 검사나 뇌척수액 배양 등으로 뇌수막염(cerebral and meningitic)을 진단할 수 있는 시설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지만, 뇌염으로 사망한 여자 아이를 세브란스병원에서 해부하여 뇌 표본을 얻었다고 밝히고 있다. Visit to Kojedo, 9 September 1952; "Visit to Kojedo," 14 September 1952, RG 469, Records of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1942-1963, Unclassified Subject Files, ca.1955-11/03/1961, Entry P 321, 37. Goje Gun.

기 위해 직접 현지에 파견되기도 하였다. 또한 추가 관찰 및 치료를 위해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추이를 살펴보는 작업도 진행되었다.³⁵⁾

거제 세브란스병원은 전시기 거제도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UNCACK 주도로 실시한 공중보건사업과 감염병 위생조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민사원조처 등의 원조기구로부터 의료기구 및 식료품 등을 충분히 지원받았다. 특히, 거제도 민사원조처에는 앞서 언급한 세브란스 의과대학 졸업생인 이병태가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40병상 규모의 병원 장비 유닛 2개를 받았고, 5KW 발전기까지 받아 개원 초기에 9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차릴 수 있었다.³⁶⁾ 또한 간호학교 교수 이영복도 UNCACK의 보건국 간호과와 관련되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자 수급이 상대적으로 원활했다.³⁷⁾ 이외에도 세브란스 출신으로 당시 보건부장관이었던 오한영의 부탁으로 약품과 의료소모품을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의료선교사이자 세브란스 교수인 만제는 미국의 구호단체로부터 방사선간접촬영필름 등의 의료용품과 생활필수품을 구하여 병원에 보내주기도 했다.³⁸⁾ 당시의 상황은 1952년 병원의 침대가 스프링이 깔린 쇠침대로, 그리고 오래지 않아 모두 쇠침대로 교체되었고, 분유가 부족하지 않게 공급되었다는 회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³⁹⁾ 아울러 병원의 격리병동에 필요한 물자는 공중보건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UNCACK에서 지원해 주는 등 세브란스병원은 다각도의 지원을 받았다.⁴⁰⁾

이러한 지원 속에 병원은 순조롭게 운영되었고, 주로 피난민 진료를 담당했다.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대부분의 진료과에 환자가 많았다. 특히 소아병동에는 영양실조 환자가 많았는데, 대부분 쌀죽, 우유죽, 쌀밥 등을 잘 먹이면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했다. 산부인과에는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많았고, 내과는 결핵 환자가 많았다. 외과에 교통

35) "Visit to Ko Je Do," 14 September 1952, RG 469, Records of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1942-1963, Unclassified Subject Files, ca.1955-11/03/1961, Entry P 321, 37. Goje Gun.

36)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백년 편찬위원회, 『의학백년』(연세대학교 출판부, 1986), 161쪽.

37) <하영수, 김선 인터뷰>, 2021년 3월 26일; 이영복, 『개정증보 간호사』(수문사, 1999), 210쪽.

38) 박두혁, 『영원한 세브란스인 김명선』, 242-243쪽.

39) 김선 선생은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거제도에서의 생활을 글로 적어서 전달해 주었는데, 그 내용 중에 침대 교체에 관한 언급이 들어 있다. <하영수, 김선 인터뷰>, 2021년 3월 26일.

40) 한 예로 뇌염이 유행할 때 UNCACK에서는 병원 격리병동의 창문에 모기장을 설치하는 조치를 취했다. 1952년 9월 14일 거제도 현지방문 자료 참조. "Visit to Ko Je Do," 14 September 1952, RG 469, Records of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1942-1963, Unclassified Subject Files, ca.1955-11/03/1961, Entry P 321, 37. Goje Gun.

사고 환자도 상당히 많이 입원했다.⁴¹⁾ 대부분 피난민 환자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무료 진료를 시행했고,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일부 환자로부터는 치료비를 받아 병원 운영에 보태기도 했다. 병원에 다녀간 환자 수는 기록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1951년 1월 5일부터 1952년 3월 말까지의 외래 환자는 198,756명, 입원 환자는 38,635명으로 집계되었다.⁴²⁾

IV. 지역병원으로의 전환과 병원의 이전 운영

1. 구호병원에서 지역병원으로의 전환과 재정 문제

1952년 3월 거제 세브란스병원의 주요 의료진은 서울로 복귀하였다. 서울역 앞 세브란스병원을 복구하여 한인노무대 전용병원으로 사용하기로 미8군과 협의가 진행되었고, 그 수리비를 민사원조처와 미8군이 각각 반반씩 부담하기로 결정하면서 서울 세브란스병원의 복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의 간호인력이 부족하자 간호학교 학생들은 1952년 3월부터는 서울로 올라가 수업을 들으면서 서울 세브란스병원의 업무를 도왔다.⁴³⁾ 이때 의료장비도 배에 실어 서울로 올려 보냈다.⁴⁴⁾

표 2. 거제 세브란스병원의 규모 및 진료 추이(1951년 4월-1953년 11월)⁴⁵⁾

시기	병원장	직원 총수	직원구분	환자수 (입원)	환자수 (외래)	의료물품
1951. 4. 14. -1952. 3. 31.	조광현	25+	의사8, 간호사17	89명/일	449명/일	-
1953. 4. 3.	조광현	24	의사4, 간호사4 조수8, 서기8	83명/일 2,075명/월	63명/일 1,890명/월	받지 못함

41) <하영수, 김선 인터뷰>, 2021년 3월 26일.

42) 박두혁, 『영원한 세브란스인 김명선』, 243쪽.

43) 다만 졸업식은 1953년 다시 거제도로 내려와서 진행했다고 한다. <하영수, 김선 인터뷰>, 2021년 3월 26일.

4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백년 편찬위원회, 『의학백년』, 163쪽.

45)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국사편찬위원회 해외수집자료 및 Harry A. Rhodes and Archibald Campbell eds.,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박두혁, 『영원한 세브란스인 김명선』.

시기	병원장	직원 총수	직원구분	환자수 (입원)	환자수 (외래)	의료물품
1953.5.	조광현	34	의사6, 간호사12 조수8, 서기8	53명/일 1,653명/월	81명/일 2,101명/월	-
1953. 5. 24. -1953. 6. 23.	김광희	22	의사4, 간호사8 조수4, 서기6	52명/일 1,566명/월	75명/일 1,956명/월	1953.6.24.
1953. 6. 24. -1953. 7. 23.	김광희	24	의사4, 간호사9 조수4, 기타7	49명/일 1,521명/월	79명/일 2,439명/월	1953.6.24.
1953.7.24. -1953.8.23.	김광희	24	의사4, 간호사9 조수4, 기타7	52명/일 1,605명/월	71명/일 2,201명/월	1953.8.4.
1953.10.24 -1953.11.23.	김광희	22	의사4, 간호사7 조수4, 기타7	58명/일 1,608명/월	53명/일 1,608명/월	1953.11.20

1952년 3월에 거제 세브란스병원의 주요 의료 장비와 인력은 서울로 복귀했지만, 여전히 병원은 <표2>와 같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며 운영되었다. 다만 의료진 본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운영과 역할에는 변화가 생겼다. 1952년 3월 이후에는 일반진료 업무 이외에도 지역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역할이 추가되었다. 1952년 6월 25일 경상남도 민사원조팀의 지휘관에게 보내는 「거제도의 공중위생상태에 관한 보고서」에는 장승포의 세브란스병원이 소멸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최근 '지역병원'으로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보건부(Ministry of Health)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는 건을 논의하고 있었다. 아울러 항생제(스트렙토마이신)와 결핵 치료제(P.A.S.)의 할당 문제, 가압멸균처리기의 도입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었다.⁴⁶⁾ 이 보고서의 내용에 미루어 판단할 때, 1952년 중반 거제 세브란스병원은 병원의 의료진의 상당수가 서울로 올라가면서 거제도의 지역의료 및 공중보건사업에 밀착하는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UNCACK 거제도팀이 1951년도 거제의 의료기관을 보고하면서 병원 수를 3개로 보고하고 있으나, 이후 세브란스병원 한 곳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보건의료에서 거제 세브란스병원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역할은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⁴⁷⁾

46) "Report of Public Health Conditions on Koje-Do, Headquarters 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mmand, Korea to Team Commander, Kyongsang Namdo Civil Assistance Team," Jun 25 1952, RG 469, Records of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1942-1963, Unclassified Subject Files, ca.1955-11/03/1961, Entry P 321, 37. Goje Gun.

47) 1953년 3월 UNCACK 거제팀의 의료구호 항목에서 병원 1개, 진료소 10개로 보고하고 있다. 거제

다만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이 점차 서울로 복귀하는 상황에서 이전과 동일한 규모로 병원을 운영하기는 쉽지 않았다. 거제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기관이나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병원 운영은 이전과 같이 원활하지 못했고, 이는 비단 거제 세브란스병원만이 마주한 현실은 아니었다. 중심 의료기관의 축소와 의료인의 이탈은 거제 지역의 의료위생환경의 전반적인 악화로 이어졌고, 거제도에 개소한 진료소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유능한 의사들이 진료소를 떠나는 등 진료소의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지역도 있었고, 진료소를 사(私)병원화하여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사건이 생기기도 했다.⁴⁸⁾ 이와 같은 상황은 피난민이 다수 거주하고, 포로수용소가 위치하던 거제도의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것이었고, 크게는 피난민이 한반도 본토로 이동할 경우 한반도의 공중위생에도 영향을 끼치는 문제로 비화될 수 있었다.

이에 거제도의 공중보건문제를 살펴보고자 당시 보건부 의정국장(Bureau of Medical Administration) 송형래와 공중보건 담당관(Public Health Officer)은 거제도를 방문하였고, 진료소와 세브란스병원을 둘러보고 당면한 문제를 파악하였다. 사안 중의 하나로 세브란스병원을 유지하는 방법이 논의되었다. 현재 병원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향후 병원 유지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또한 거제 지역에 큰 병원이 세브란스병원 한 군데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생제나 결핵치료제, 백일해 백신 등이 제대로 할당되지 않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조치를 촉구하였다.⁴⁹⁾

이러한 상황은 보고서가 작성된 1952년 7월 당시 세브란스병원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UNCACK의 원조나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금에 의존⁵⁰⁾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1952년 중반까지는 거제 세브란스병원은 초기 병원장을 맡은 조광현 원장이 변함없이 병원을 이끌고 있었고, 감염병 환자의 파악 및 진단, 통계, 치료, 간호, 격리 등 진행하는 일련의 방역사업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보폭을 확대해 나아갔다.

문화원향토사연구소, 『거제근현대문헌총서 V: 미군정기와 1960년 이전 거제도 중요문서』, 220쪽.

48) "Field Trip to Koje Do," 3 July 1952; Health Problems on Koje Do, 4 December 1952, RG 469, Records of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1942-1963, Unclassified Subject Files, ca.1955-11/03/1961, Entry P 321, 37. Goje Gun.

49) "Field Trip to Koje Do," 3 July 1952, RG 469, Records of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1942-1963, Unclassified Subject Files, ca.1955-11/03/1961, Entry P 321, 37. Goje Gun.

50) 송형래는 세브란스병원의 유지를 경상남도 도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Field Trip to Koje Do," 3 July 1952, RG 469, Records of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1942-1963, Unclassified Subject Files, ca.1955-11/03/1961, Entry P 321, 37. Goje Gun.

그러나 문제는 195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었다. 세브란스병원은 매월 약 2천만 원의 경비를 지출해야 했는데, 이를 보건부의 지원금과 세브란스 기금, 그리고 진료비 수입에서 충당해야 했다. 그러나 보건부는 1952년 가을부터 세 달째 월 400만원의 지원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서울역 앞 세브란스병원의 재건으로 세브란스 기금이 전용되면서 월 보조금 500만원도 지급되지 않아 병원은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 또한 거제 지역의 배급 식량은 수수였는데, 환자의 식사에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쌀로 교환해야 했다. 여기에 부족한 쌀을 추가로 구매하기 위해 약 400만 원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시급히 부족한 재정을 확보해야만 했다.⁵¹⁾ 그러나 이때는 서울 세브란스병원의 재건에 대부분의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제 세브란스병원의 운영은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거제도에 파견되어 있던 캐나다 선교부에서 1천만 원을 기부하여 병원은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했고, 향후 병원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세브란스의 지원 등 재정 문제의 타개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⁵²⁾

2. 한국전쟁 이후 병원의 이전과 운영

병원의 재정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1953년 3월에는 병원 이전 요구까지 겹치면서 병원 운영은 난관에 봉착했다. 1953년 1월 1일부로 거제도와 부속도서가 통영군에서 분리되어 거제군이 복군(復郡)되면서 거제군에서는 장승포국민학교를 군(郡) 사무소로 사용하려고 했다. 이에 따라 그 자리에 있던 병원을 비워줄 것을 요청하였다. 단, 거제군이 장승포국민학교 건물을 군청으로 접수하는 대신, 세브란스병원이 옮겨갈 수 있는 적당한 건물을 찾아둔다는 전제조건은 있었다. 건물은 확보해주지만, 의료진의 구성과 확보(고용) 문제는 보건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⁵³⁾

세브란스병원은 UNCACK이 진행한 거제도 공중보건사업⁵⁴⁾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

51) "Health Problems on Koje Do," 4 December 1952, RG 469, Records of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1942-1963, Unclassified Subject Files, ca.1955-11/03/1961, Entry P 321, 37. Goje Gun.

52) "Health Problems on Koje Do," 4 December 1952, RG 469, Records of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1942-1963, Unclassified Subject Files, ca.1955-11/03/1961, Entry P 321, 37. Goje Gun.

53) "Departure of Severance Hospital from Koje Do," 9 March 1953, RG 469, Records of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1942-1963, Unclassified Subject Files, ca.1955-11/03/1961, Entry P 321, 37. Goje Gun.

54) 이입하가 정리한 UNCACK의 두창,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예방접종 통계를 살펴보면, 다른 지역과는

한 기관이었기 때문에 세브란스병원의 유지와 운영은 세브란스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였다. 다만,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재정보호 문제, 행정구역의 변화 등의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전협정은 체결되었고, 1953년 9월 1일부터는 주한민간원조사령부(Korean Civil Assistance Command, KCAC, 이하 KCAC으로 표기)⁵⁵⁾ 경상남도 팀은 더 이상 거제도의 위생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위생에 관한 의무와 관련 장비는 거제군청으로 넘겨졌다.⁵⁶⁾

이러한 일련의 변화 속에서 세브란스병원은 예정대로 건물을 이전하게 되었는데, 새로 이전한 장소는 KCAC팀이 장승포에서 사용하던 건물이었다. 이 건물은 현재 거제 세브란스병원의 흔적이 남아있는 장승포시 장승포동 218-2번지 일대로 보인다.⁵⁷⁾ 한국전쟁 당시 거제도에서 의료선교활동을 하던 플로렌스 머레이(Florence J. Murray)도 이전한 세브란스병원을 지칭하면서 캐나다 선교부 선교사들이 기거했던 2층짜리 생선저장소를 개조하여 15개 병상을 갖춘 입원실과 외래로 사용했다고 기술하고 있다.⁵⁸⁾ 이 두 묘사는 모두 사진 속의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림 1. 목조 2층 함석조의 외래진료실 건물
(전경 사진, 1980년대, 촬영년도 미상)



그림 2. 목조 2층 함석조의 외래진료실 건물
(후면 사진, 1980년대, 촬영년도 미상)

다르게 1951년도의 거제도의 예방접종 비율은 100%이다. 이임하, 「한국전쟁기 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의 보건·위생 정책-급성전염병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00, 2013, 340, 342쪽.

55) 한국전쟁 후 UNCACK은 KCAC으로 변경되었다.

56) "Record on the Field Trip to Koje-Do on the 3rd and 4th of September 1953," RG 469, Records of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1942-1963, Unclassified Subject Files, ca.1955-11/03/1961, Entry P 321, 37. Goje Gun.

57) 「세브란스 거제분원 역사」 참조.

58) 플로렌스 머레이 지음, 박광화·박기창·박정진·신정호·조미연 옮김, 『리턴 투 코리아: 머레이 선교사의 의료선교 이야기』(대한기독교서회, 2005), 187쪽.

1953년 9월 현재 병원 이전을 위한 정비가 진행중이었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9월 중에 병원 이전은 완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은 이전했으나, 의료장비와 도구는 기존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캐나다 선교부가 재정지원을 담당하게 되면서 재정 문제도 해결되었다.⁵⁹⁾

그렇다면 재정지원 주체가 변경되면서 세브란스라는 이름은 사라졌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선교부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세브란스병원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남았다. 그리고 세브란스 출신 의사들이 남아 근무하면서 세브란스의 명맥은 이어졌다.⁶⁰⁾ 병원에 남은 이들은 외과의 김광희, 주수택이었는데, 병원 운영권이 캐나다 선교부로 이관되면서 그들은 고용된 형태로 병원에 근무⁶¹⁾하다가 김광희는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주수택은 부산으로 건너가면서 병원의 의료진은 점차 캐나다 선교부의 의료선교사들로 채워졌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병원장도 김광희에서 1953년에 거제도로 내한한 캐나다 의료선교사 이안 롱(Ian S. Robb)⁶²⁾으로 변경되었다. 그는 1956년 거제를 떠나 고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병원 운영을 맡았다.

병원은 작은 선교지부를 두고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전도사업도 하였기 때문에 롱 이외에도 전도사역을 담당한 에드 베이커(Ed Baker), 윌프 왜들(Wilf Waddle)⁶³⁾이 있었고, 1954년에는 그들을 대신하여 샌들과 윌라 키어넨(Willa Kearnen)이 부임했다. 샌들은 앞서 등장했던 세브란스 전시간호학교 교장을 역임한 인물이며, 그전에는 함흥 세혜병원 간호부장으로 일했던 캐나다 선교부 소속의 선교사이다. 그녀는 1953년 이후에도 서울 세브란스병원과 거제 세브란스병원을 오가며 의료선교 활동을 지속했다.⁶⁴⁾

1953년 캐나다 선교부로 이전한 직후의 병원은 30병상 규모, 한국인 의사 2명, 간호사

59) "Record on the Field Trip to Koje-Do on the 3rd and 4th of September 1953," RG 469, Records of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1942-1963, Unclassified Subject Files, ca.1955-11/03/1961, Entry P 321, 37. Goje Gun.

60) 병원 이전 후에 의료진을 어떻게 구성하고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사안은 보건부가 담당해야 했다. 그러나 의료진이 고용되는 과정에서 보건부의 개입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으므로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61) 『세브란스와 한국전쟁』, 125쪽 및 〈이안 롱의 기록〉(동은의학박물관 소장) 참조.

62) 거제 세브란스병원 외과에서 3년간 근무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가 빅토리아 종합병원에서 2년간 마취과 수련을 받고 1957년 다시 내한하여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했다. 그는 마취과가 외과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교실로 창설되는 데에 기여했으며, 창설 후에는 초대 과장으로 임명되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역임, 『세브란스 선교사 편람』(역사공간, 2019), 145-146쪽.

63) 롱이 작성한 글에 따르면 둘은 캐나다 출신의 목사(minister)였다. 〈이안 롱의 기록〉 참조.

64) 플로렌스 머레이 지음, 박광화·박기창·박정진·신정호·조미연 옮김, 『리턴 투 코리아: 머레이 선교사의 의료선교 이야기』, 174쪽.

6명으로, 운영권을 이전하기 전보다 축소된 규모로 운영되었다.⁶⁵⁾ 그러나 주된 업무는 의료와 선교사역, 그리고 지역사회사업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되면서 지역사회에서의 영향력은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진료 이외에 영양부족으로 인해 많은 결핵환자가 발생하자 결핵 병사를 보충하고자 하였고, 거제도의 고아원을 관리·감독하는 한편 Well Baby Clinic, 산후 클리닉, 임신부를 위한 교실 등 영아보건사업과 임신부를 위한 사업을 실시했다. 이러한 사업은 장승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거제도 전체의 사회사업과 연결된 것이었다. 이는 전후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영아사망률이 높고, 고아가 많았던 당시의 지역사회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세브란스병원이 거제도 사회사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⁶⁾

병원을 담당하던 록과 고아원 관리, 모자사업 등을 담당하던 샌들이 1956년 늦은 봄에 거제를 떠나면서 그 이후의 병원 운영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그 이후에 주수택의 매부이자, 1948년에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졸업한 개업의 김양선이 병원을 맡게 되면서 그가 마지막 거제 세브란스병원의 원장이 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적어도 1969년 혹은 1970년대 초까지는 거제 세브란스병원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⁶⁷⁾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부지 및 건물 현황은 다음과 같다.

〈거제 세브란스병원 부지 및 건물현황〉

▶ 부지: 312평

▶ 동별 건물 구조

* 외래진료실: 목조 2층 함석조(54평)

1층: 접수,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약국, 방사선과, 임상병리실

2층: 회의실(예배실), 원목실

* 병동: 목조 2층 기와조(45평)

1층: 병실, 수술실, 식당, 세탁실

2층: 산부인과 병실, 간호사 기숙사

65) <이안 록의 기록> 참조.

66) "Kojé Do Islands," 7 September 1954, RG 469, Records of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1942-1963, Unclassified Subject Files, ca.1955-11/03/1961, Entry P 321, 37. Goje Gun.

67)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편, 『세우』, 1969년 및 1974년 참조. 1970-1973년은 결호이다.

* 소아병동: 목조 합석조(20평) --- 멸실

1층: 창고, 식당

2층: 소아병동, 일반(남)병동

* 천막병동 --- 멸실

* 사무실, 숙소: 목조 1층 합석조(25평)

1층: 사무실, 창고, 숙소

김양선이 운영하던 당시의 병원 부지 및 건물 현황 이외에 진료기록 등은 발견되지 않아 운영 형태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세브란스 의대 부속 거제도 구호병원 외에 세브란스 의과대학 부속병원 거제도 진료소, 세브란스 장승포 보건진료소 등 의원이나 진료소⁶⁸⁾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내과, 소아과 등 일반진료를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한국전쟁기 대표적인 구호의료기관 중의 하나인 거제 세브란스병원의 개원 과정과 운영을 살펴보았다. 국사편찬위원회가 미국에서 수집한 자료와 기존의 구술 내용을 교차 검증하여 거제도에 세브란스병원이 개원하게 된 공식적인 이유로 정부의 구호병원 설립 계획과 UNCACK의 역할과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병원 업무는 UNCACK과의 유기적인 연계하에서 진행되었고, 거제도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 피난민 및 거제 주민의 건강과 UNCACK이 거제도에서 실시한 공중보건사업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1952년 3월 세브란스병원의 의료진이 서울로 올라온 이후에도 병원은 폐원의 수순을 밟지 않고 현지에 남아있던 세브란스 출신의 의사들을 중심으로 하여 운영이 지속되었던 점을 확인하여,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운영시기와 실제 운영기간이 상이함을 밝혀냈다.

물론 서울역 앞 세브란스병원의 재건사업, 휴전 등의 굵직한 사건으로 인하여 거제 세브란스병원의 운영방식과 운영권은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1952년 이후 거제 세브란스병원

68) 1969년도 『세우』에는 거제세브란스 '의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원로 인터뷰에는 '세브란스 진료소'로 기록되어 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편, 『세우』, 1969.

은 일부 남아있던 의료진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하에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으로 성격이 변경되기도 하고, 캐나다 선교부가 운영권을 소유하다가 개인에게 운영권을 이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나아갔다. 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이 공간이 갖는 의미는 더욱 확대되었고, 다른 전시구호병원과는 다르게 폐원의 수순을 밟지 않고 휴전 이후에도 명맥이 유지될 수 있었다.

본고에서 다룬 거제 세브란스병원은 한국전쟁 발발 후 서울역 앞 세브란스병원이 기능을 상실한 동안 세브란스를 대표하는 병원이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후 거제도의 지역의료를 담당한 대표적인 병원이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재정난, 인력난으로 병원의 운영권을 캐나다 선교부, 그리고 세브란스 의과대학 출신의 개업의에게 넘겨주기는 했지만, 병원은 폐원할 때까지 ‘세브란스’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거제 지역의 의료 및 공중위생의 증진, 사회사업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서울역 앞의 세브란스병원과 더불어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세브란스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무관심속에 방치되어 현재는 거의 폐허상태로 남아있다. 거제 세브란스병원 개원 70주년을 기념하여 거제도에 마련되었던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거제 세브란스병원, 구호병원, 한국전쟁, 세브란스병원, 공중보건사업, 전염병, 장승포, 민사원조사령부(UNCACK)

논문 투고일: 2021.4.30. 심사 완료일: 2021.5.31. 게재 확정일: 2021.5.31.

참고문헌

1. 자료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Board of Foreign Missions, Korea Mission Records, 1903-1957, Series 2-Korea Mission Field Correspondence and Board Circular Letters, 1910-1953, Board Circular Letters to Mission, 1949-51

Record Group 338: Records of U. 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 (World War II and Thereafter), 1917-1993; General Correspondence, 1951-1955 [Entry A1 1301]; RG 338, UN Civil Assistance Command, Korea (UNCACK), 1951, Box 17, Hist Prog Files - Weekly Act RPTS 1951 (1 of 2)

Record Group 469: Records of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1942-1963, Unclassified Subject Files, ca.1955-11/03/1961 [Entry P 321], 37. Goje Gun

「세브란스 거제분원 약사」

〈하영수, 김선 인터뷰〉, 2021년 3월 26일 구술채록

〈이안 룩의 기록〉, 동은의학박물관 소장

『자유민보』, 『산업신문』

거제문화원향토사연구소, 『거제근현대문헌총서 V: 미군정기와 1960년 이전 거제도 중요문서』, 선인, 2016

거제문화원향토사연구소, 『거제근현대문헌총서 VI: 거제도포로수용소 중요문서』, 선인, 2016

2. 연구서 및 연구논문

박두혁, 『영원한 세브란스인 김명선』, 김명선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회, 1998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사(1885~2015)』, 2015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편, 『세우』, 1969-1987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세브란스와 한국전쟁」, 『연세의사학』 7(2), 2003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한국 안과학의 선구자, 최역」, 『연세의사학』 15(1), 2012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엮음, 『세브란스 선교사 편람』, 역사공간, 2019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엮음, 『세브란스 학생운동사』, 역사공간, 2020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백년 편찬위원회, 『의학백년』,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6
- 이동원, 「6·25전쟁과 한국 보건의학계 및 보건학의 형성」, 『동국사학』 69, 2020
- 이임하, 「한국전쟁기 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의 보건·위생 정책-급성전염병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00, 2013
- 플로렌스 머레이 지음, 박광화·박기창·박정진·신정호·조미연 옮김, 『리턴 투 코리아: 머레이 선교사의 의료선교 이야기』, 대한기독교서회, 2005
- 하영수, 『우리의 발자취 II-나의 인생을 말하다』, 2017
- Harry A. Rhodes and Archibald Campbell eds.,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vol. II (1935-1959)* (Seoul: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Department of Education, 1984)

Abstract

Medical Relief Organizations during the Korean War : Opening and Operation of Koje Severance Hospital

Kim Young-soo*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role of Koje Severance Hospital as a medical relief institution during the Korean War and to examine its status as a regional healthcare institution on Geoje (Koje) Island. To clarify that, this article confirms the opening process and operation of Koje Severance Hospital, a representative medical relief hospital during the Korean War.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newly collected documents, it shows the official reason the hospital was opened in Jangseungpo, Geoje Island. Severance Hospital was designated as a hospital on Geoje Island in late January 1951 to handle the 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rps Korea (UNCACK)'s public health affairs. The hospital was responsible for the free treatment of refugees and for UNCACK's public health affairs, including checking the health status of refugees, checking for infectious disease prevalence, patient care and isolation of infectious diseases, clinical testing, and dissection.

This project continued even after March 1952, when the reconstruction project of Severance Hospital in Seoul began. However, the hospital's operation deteriorated because the Ministry of Health's subsidies and a severance fund were not paid in time. The hospital was transformed into a local medical institution and moved to a new location from 1952-1953. Because there were very few medical institutions on Geoje Island, the hospital was maintained after the Korean War ended with the armistice. As a result, the Canadian Mission took over the management of the hospital and continued its

*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Medical History, Department of Medic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medical activities, and a general practitioner (GP) who graduated from Severance Medical College took over as the hospital director and operated it until its closing in early 1970. The hospital used the name “Severance” until it closed, which suggests that Severance Hospital had a significant meaning in Geoje.

Key Words : Koje Severance Hospital, Relief Hospital, Korean War, Severance Hospital, Public Health Service, Infectious Disease, Jangseungpo, 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rps Korea, UNCACK